

# People & Life

## 이호준 광주사회복지모금회 회장 취임



이호준 전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이 지난 14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장흥 출신인 이 회장은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쳤으며 1967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호남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회장들이 쌓아온 업적을 토대로 모금기관의 복수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모금액의 규모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강진 백련사 '팔국사 다례문화제' 열려



대한불교 조계종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 스님·사진)는 지난 16일 오후 '팔국사 다례문화제'를 열었다.

고려의 8국사를 배출했던 '백련결사'의 도량 백련사는 이날 20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8국사의 위패가 봉안된 명부전에서 육법공양을 올리는 제례의식을 가졌다.

또 부대 행사로 열린 '동백나무 숲(천연기념물 151호) 음악회'에서는 하림과 양양 등 초대 가수들이 흥겨운 노래를 선사했다.

/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 유태명 동구청장 오늘 '동구 비전' 특강



유태명 동구청장은 18일 오후 6시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상인교육장에서 대인시장 상인대학 수강생 130명을 대상으로 '동구 비전 5대 시책'에 대해 특강을 실시한다.

유청장은 이번 강의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상인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비美 '타임 100' 온라인 투표 1위 확정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29)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100인 후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이하 타임 100)'의 온라인 투표에서 최종 1위에 올랐다.

타임은 지난 15일 독자들을 상대로 올해 '타임 100인' 후보 203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전날 밤 마감한 결과 비가 40만625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비는 2006년 온라인 투표 1위에 이어 '타임 100'에 최종 선정돼 레드 카펫을 밟았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온라인 투표에서 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온라인 투표 2위에는 대만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저우제룬이 20만7239표 득표를 올렸고, 3위는 영국의 TV프로그램 '브리튼스 그레이트스트리트'에서 일약 스타가 됐던 수전 보일이 차지했다.

# “병영상인들은 해상왕 장보고의 후예”

## 강진 병영상인 재조명 전남대 박성수 교수

전남대 박성수 경영학부 교수(대한경영학회회장)가 잊혀져 가는 병영상인의 역사를 되살려내 화제다. 박 교수가 병영상인의 중요성을 알린 것은 지난해 5월 한국경영사학회 세미나. 그는 이 학회에서 “북에 ‘개성상인’이 있었다면, 남쪽에서는 ‘병영상인’이 최고였다”며 강진군 병영면을 본거지로 한 병영상인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관심을 모았다.

박 교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5일 한국경영사학회와 강진군과 함께 강진군 병영면사무소에서 ‘병영상인 학술발표대회’를 개최, 한국 상인사에서 차지하는 병영상인의 위상 정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인 가운데 몇몇 사람이 개성상인 후예라고 소개될 정도로 개성상인은 연구도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병영상인은 학계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 교수가 지난해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병영상인에 대해 발표했을 때 참석자들은 개성상인·동래상인·강경상인·의주상인 등이야 그런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병영상인은 처음 들었다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박 교수는 “병영의 상업역사는 통일신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해진이 현재의 행정구역상 완도군에 속하지만 1896년에 안도군이 신설되기 전까지 강진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영상인도 해상왕 장보고의 상인정신을 계승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조선조 태종 17년(1417년) 때 전라병영이 설치된 이후, 병영은 지금으로 말하면 호남지역의 육군사령부가 들어선 덕분에 일약 인구 1만5000명의 도시로 부상하게 됐다고 한다.

당시는 군 재정이 취약해 군인들에게 물건을 사

갈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부보상들이 병영으로 모여들어 성시를 이뤘다. 그러다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병영이 폐영될 때까지 약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병영은 활발한 상업도시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일제 강점기가 도래하면서 병영상인들은 만주까지 다니며 보편을 넓혔지만, 상업 활동은 소강상태로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1945년 광복 후 차츰 5일장이 활성화되면서 병영상인의 후손들은 신용과 근면의 상인정신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병영은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병영상인들은 근대화 물결 속에 5일장의 쇠퇴로 상실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상인정신을 유지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재계에서는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 아남반도체 창업주 김광수 회장, 광주에 대 설립자 오지석 이사장 등이 병영상인의 후손으로서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소외 이웃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 신임 광주 YWCA 사무총장 김신희씨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종교와 이념을 떠나 소외된 이웃에 손을 내미는 광주 YWCA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달 4일 광주 YWCA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는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김신희(45) 관장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광주YWCA의 올해 목표로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살리는 교육환경 ▲평과 생명을 살리는 지역사회라고 소개하며, 그동안 써 뿌려온 인권·민주화·청소년·여성운동의 과제들을 더욱 알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는 이를 위해 일회성 이벤트식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이주 여성들의 임신·출산·육아까지 모든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결혼 전 과정이 이뤄지는 해외에서부터 국내 지원까지 정부 차원에서 통합된 하나의 기구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힘을 보탤 생각이다.

그는 또 “광주 YWCA는 앞으로 청소년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김신희 사무총장은 광주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위원, 광주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광주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으며, 광주 YWCA 이사, 기획 및 지도력양성부 부장·국장 등을 역임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이덕수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 순천대 특강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사진)가 지난 15일 오전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농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대표이사는 강연에서 협동조합의 탄생 배경 등을 설명하고 향후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 금호타이어 유니세프에 기금 전달



금호타이어는 2011 서울모터쇼 기간 동안 열린 ‘유니세프 티셔츠 만들기’에서 모금된 기금을 지난 15일 유니세프 측에 전달했다. 왼쪽은 조동근 금호타이어 마케팅 담당 상무, 오른쪽은 유니세프 박영진 경영지원 본부장.

## 고령정보산업학교-전남대 업무협약



고령정보산업학교와 전남대 생활과학대학(학장 이숙)은 지난 14일 광주소년원에서 재비행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정보교 제공>

# “시민 힘모아 日 사죄 받을것”

## 근로정신대 운동본부 김희용 대표

“광주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기어아 일본이 사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27개 단체와 함께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10만 희망 릴레이 광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진 김희용(52·사진) 운동대표는 “10만 희망릴레이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굴욕의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208일 간의 1인 시위, 13만5000여명에 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만의 역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지역사회의 연대와 지원을 받게됐다.

이번 운동본부 출범에는 광주YMCA와 전교조 광주지부, 민주사회를위한환호사모인 광주전남지부 등 여러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참여

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권까지 참여했다.

김 대표는 “과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보내준 온정을 ‘독도 땅인’으로 화답한 것이 오늘의 한일관계다”며 “대지진 성금 모금에 앞장선 정부는 정작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협상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본노안으로 역사가 바뀌지 않듯 시민들의 힘으로 투쟁기금을 마련해 굴욕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라고 말했다.

10만 희망릴레이 차량스타터 부착운동, 카페 및 홈페이지에 배너 부착운동, 자치단체 및 지역정치권에 의제화 활동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는 김 대표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혜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양수현기자 yang@

## ‘헌혈 왕’ 손홍식씨 600번째 나눔

‘대한민국 헌혈 왕’ 손홍식(61)씨가 600번째 사람을 나눴다.

손씨는 지난 1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헌혈의 집 전남대센터에서 600번째 헌혈을 했다.

손씨는 1984년 5월 처음 헌혈을 시작한 이후 2주 간격으로 헌혈을 해오면서 이번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렇게 손씨가 지난 27년여 동안 나눔 사랑의 양은 약 30만cc. 이는 60kg 몸무게의 성인 60명의 몸속에 있는 혈액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손씨는 “헌혈을 빚대 의무, 책임, 사랑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헌혈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특권이다”며 “건강을 적립한다는 생각으로 헌혈을 해왔다”고 말했다. 손씨는 “만 70세까지 헌혈을 계속해 800회를 넘어서겠다”는 각오다.



/김경민기자 kki@

###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 화측

▲최혁(보성건설 상무이사)·석유화학장장 은석(IG전자 디자인연구소 주임연구원) 권 박동규(순창군청)·김주희씨 장녀 진하(조선대 미술대 강사)양=23일(토) 오전 11시 50분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2층(라벤더 홀)

#### 중친회

▲수원백씨 광주·전남총친회(회장 백행호) 정기총회=22일(금) 오전 11시 상록회관 3층 011-634-8728.  
▲의성김씨 광주·전남총친회(회장 김근남) 정기총회=24일(일) 오전 11시 금호회관(전일빌딩 뒤) 010-3114-5584.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제7회 회봉안선생추모 강회 개최=23일(토) 오전 10시 죽곡정사(보성군 북내면 진봉리) 010-2654-3249.  
▲66만 전·외경 출신 모임=전·외경회 결성. 019-277-0007.

#### 모집

▲2011 시민문화예술강좌 수강생=5월 16일까지 모집·수업일은 5월 17일~10월 11일까지(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주1회·총 20회 수업))·모집인원은 20명내외·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일반 시민 누구나 가능 (사)대동문화재단 062-430-5257.  
▲장애아 돌보미=2011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돌보미 모집. 만 18세 미만 자폐성장애아,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중증장애아 가정에 파견돼 일상생활 지원, 신변처리, 치료동반 등 서비스. 특수교사, 재활관련 및 장애인 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광산구·북구 지역 거주자 우대. 시간당 6000원 지급(교통비 별도). 22일(금)까지. 엠바우복지재단 062-524-7701.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용보험=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년복지센터. 062-266-6321~2.

####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으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 (누담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호사랑넷 봉사단=평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문해 한글과정 지원봉사 여교사·학생=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전통문화 보존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

#### 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독서지표조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강사-시인·아동문학가·심리상담지도사 김성구 박사, 평생교육원 062-670-2167, 2168.

#### 부음

▲이소악씨 별세 최진영·진남·진옥·영복·선옥씨 모친상=발인 19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조남근씨 별세 홍식·홍철·은영·일형씨 부친상=발인 19일(화)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송원씨씨 별세 태종·태섭·태준·태구·해자·혜숙·혜정씨 부친상=발인 19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b>故 정경주 님(남/63세)</b> 子/子婦: 정형철/김미진, 형호/이복순 女/婿: 정정희/최진중 • 호실:101호 • 장지:영락공원 故안경애 님(여/81세) 子/子婦: 허우영/김영주, 태인/정미자, 태정/김재순, 태순/유영효, 경호/박윤하 • 호실:401호 • 장지:보성 특향	<b>故 김학선 님(남/79세)</b> 子/子婦: 김신주/박정희, 종채/이혜숙 종환/이정아, 종진/정지순 女/婿: 김동희/안상우 • 호실:201호 • 장지:강진 선천 <b>故 설영수 님(남/63세)</b> 子: 설영민 女/婿: 설지원/이재희, 희문/변성호 • 호실:402호 • 장지:영락공원
--	--

마음까지 댄 한 **孝** 금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b>故 임계호 님(남/90세)</b> 子/子婦: 임준영/심영숙, 영태/김영순, 영국/최정희, 영신/김승희 女/婿: 임인숙/손태훈, 인순/최성화, 성숙/허은수, 영숙/강석민, 은주/문은호 • 발인:4월 18일 09시00분 • 장지:고흥 파영면 선영 • 연락처:250-4413	<b>故 김학술 님(남/77세)</b> 子/子婦: 이장규/박문희, 이주환 女: 이수경, 이정은 • 발인:4월 18일 12시00분 • 장지:영락(강락공원) • 연락처:250-4405
<b>故 김동식 님(남/88세)</b> 子/子婦: 김희우/정성수, 희정/김미, 희중/김말임 女/婿: 김국희/최금희, 희삼/김승중, 명삼/김대선, 유삼/김용수 • 발인:4월 18일 08시00분 • 장지:강진 군동면 선영 • 연락처:250-4412	<b>故 김관수 님(남/75세)</b> 子/子婦: 김명중/김정남, 관중, 남중/정옥희 女/婿: 김정희/이광철 • 발인:4월 19일 09시00분 • 장지:담양 용면 • 연락처:250-4410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